

조선후기 이인(異人) 이패랭이(李平涼) 관련 서사에 대한 고찰

진민희*

- I. 서론
- II. 이패랭이에 대한 기록과 고증
- III. 이패랭이 서사의 중첩과 변주
- IV. 결론

<국문초록>

‘패랭이 인물 유형’은 이패랭이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다수의 작품에 등장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본고가 주목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기록된 ‘이패랭이’라는 인물이다. 이패랭이는 18~19세기 문화적 특성의 다양한 면모를 고루 갖춘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흥미와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패랭이 연구는 모두 개별 작품에 한정되었으며 작품 간의 관련성을 상고한 글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패랭이 관련 작품은 다수의 문집에 산재하나, 본고는 이동운(李東允)·성행응(成海應)·서형수(徐滢修)·강준흠(姜浚欽)·심능숙(沈能淑)·유본학(柳本學)·서유영(徐有英)·장지연(張志淵)의 글과 편자 미상의 『동국고사(東國故辭)』·『계암만록(鷄鴨漫錄)』·『야담기문(野談奇聞)』에 실린 이패랭이 서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패랭이 서사는 두 명 이상의 인물이 복합되어 만들어졌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정해와 이은이다. 이정해는 노론계 핵심인물이었던 완산 이씨 이정소의 족손이다. 성해응과 유본학은 이정해를 이패랭이로 명시하였고,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심능숙과 장지연은 이은으로 명시하였다. <이은전>은 이은이 이패랭이로 활동하며 남긴 다양한 이인설화와 함께 이에 대한 당대인들의 평가가 자못 상세하다. 또한 상기의 현전 작품 간 서사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 저명한 문인들에게 정리된 문체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 작품 내 이패랭이의 활동지역이 어느 정도 서로 일치한다는 점, 작자와 작품 내 이패랭이 교류자의 범위가 노론계 경화사족과 친노론계 일가로 일정하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패랭이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이인(異人)이었다. 이패랭이 서사의 주된 소재는 기인(奇人)이 된 연유, 뛰어난 문식(文識), 신선술 등 3가지이다. 또한 뛰어난 재주를 겸비하였음에도 비극적인 개인사 때문에 방랑객이 된 김삿갓과 비교했을 때, 앞선 시대에 활동하며 다양한 서사를 남긴 이패랭이를 유랑 지식인의 선구적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패랭이와 김삿갓을 같은 인물 유형으로 보기에는 그 결이 매우 다르다. 김삿갓은 사회 풍자와 유희적 성격이 강한 시를 지었지만, 이패랭이는 사회를 풍자하는 희작이 없다. 또한 이패랭이의 문식과 시적 재능은 당대에 널리 인정받았음에도 전하는 작품 수가 상당히 적다. 결정적으로 이패랭이의 이인담이 신선술에 방점이 찍힌 데에 비하여, 김삿갓의 이인담은 보다 현실적이며 풍류를 즐기는 면모를 골자로 한다. 이는 이패랭이를 ‘시인(詩人)’이 아닌 ‘이인(異人)’으로 남게 하는 결정적 한계이기도 하다.

핵심어 : 이패랭이, 이평량자, 평량자, 이인 서사, 조선후기

1. 서론

본고는 18~19세기 조선의 이인(異人) 이패랭이[李平涼]와 관련한 서사를 취합하여 정리하고, 이들 작품의 특징과 작품 간의 관련성을 분석·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패랭이 관련 작품은 다수의 문집에 산재하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동윤(李東允)의 <이평량(李平涼)>·성해응(成海應)의 <담이(談異)>·서형수(徐溎修)의 <평량자전(平涼子傳)>·강준흠(姜浚欽)의 <이인 이평량(異人 李平涼)>·유본학(柳本學)의 <이정해전(李廷楷傳)>·

심능숙(沈能淑)의 <이은전(李嶮傳)> · 서유영(徐有英)의 『금계필담(錦溪筆談)』 · 장지연(張志淵)의 <이은(李嶮)> · 편자 미상의 『동국고사(東國故辭)』 · 『고금소총(古今笑叢)』 · 『계암만록(鷄鴨漫錄)』 · 『야담기문(野談奇聞)』 등에 실려 있다. 특히 <이은전>은 앞뒤에 부기된 서문과 기문을 통해 여타의 작품보다 이패랭이에 대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은전>에 따르면 ‘이 때에 서울과 전라도 간에는 이패랭이라 칭하는 자가 몇 명 있었는데, 도성과 산림의 사람들이 모두 패랭이를 썼다’고 하였으니, 당시 이패랭이의 유명세를 가늠할 수 있다.

기실 ‘패랭이 인물 유형’은 이패랭이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다수의 작품에 등장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본고가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기록된 ‘이패랭이’라는 인물이다. 상기 작품군은 이패랭이를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이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행담(奇行談)과 함께 그가 기인이 된 특별한 연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여 상당한 흥미를 유발시킨다. 또한 이패랭이의 이인적 면모를 설명하기 위해 뛰어난 문식 · 신선술 · 검술 · 바둑 등과 관련된 일화를 사용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성행한 문화적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구하자면, 조선후기 사대부 문인들에게 ‘이패랭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이패랭이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감이 있다. 우선 박희병이 이인 설화와 신선전의 장르적 관련양상과 특성을 살펴며 유본학의 <이정해전>을 예로 들었다. 그는 16~17세기 이인설화의 성행과 그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며 신선전의 개념을 정리하는 한편, 18~19세기에 전개되는 신선전의 양상에 대하여 첫째, 신선에 대한 동경과 긍정, 둘째, 은일지사(隱逸之士)로서의 처지에 대한 동경과 연민, 셋째, 작자의 호기취향(好奇趣向)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유본학의 <이정해전>을 포함한 18세기 이후 신선전은 조선조의 지배질서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한 존재방식을 보여주며, 현실적 불만을 도가에의 몰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보았다.¹⁾

임형택과 안세현은 각각 한문단편소설과 전을 선별해 번역한 책에서 이패랭이에 대해 짧게 평한 바가 있다. 임형택은 이동윤의 <이평량>에 대하

1) 박희병, 『韓國古典人物研究』, 한길사, 1992, 187~275면.

여 19세기에 활동한 김삿갓의 앞선 부류라 해석하며, 두 사람은 방랑시인으로서 유락한 지식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졌다고 하였다.²⁾ 안세현 또한 서형수의 <평량자전>에 등장하는 이패랭이를 유랑 지식인으로 파악하였다.³⁾

장효현과 진민희는 심능숙 산문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이은전>을 고찰하였다. 장효현은 단위논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은전>의 작품 분석을 시도하였다.⁴⁾ 진민희는 <이은전>이 심능숙의 문학 성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파악하고, 그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심도 깊게 살피고자 하였다.⁵⁾

이상의 기존 연구는 모두 개별 작품에 한정되었으며 작품 간의 관련성을 상고한 글은 이승수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태이다. 이승수는 ‘삿갓 시인’이라는 용어와 견줄 수 있는 용어로 ‘패랭이 지식인’의 인물유형을 제시했다. 그는 15~19세기 간에 ‘평량자(平涼子)’로 통했던 이들의 기록을 찾고, 이들의 공통점으로써 유랑성, 주류 규범과의 불화 또는 예법에 대한 부정, 주류 명사들을 압도하는 뛰어난 식견 등 3가지를 꼽았다. 또한 이러한 성향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패랭이 작용’이라는 특수한 복장이라고 지적하고, 패랭이와 삿갓이 특수 지식인의 표상으로 나타난 양태라고 분석하였다.⁶⁾ 이승수의 연구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패랭이 지식인의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만 패랭이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에 좀 더 무게가 실려 개별 작품 속의 인물서사 분석 비중이 낮고, 조선후기 패랭이 인물유형의 대표격인 이패랭이를 다룬 작품을 상당수 거론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고는 이패랭이 관련 서사 연구에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후기 주요 작가들의 문집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이패랭이 관련 작품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이패랭이 관련 서사가 2인 이상의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음을 고증하겠다. 둘째, 이들 작품 서사 간의 유의미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이패랭이와 주변 인물, 그리고 당대의 문화적 흐름을 다층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 2, 태학사, 2012, 136면.

3) 안세현, 『傳, 불후로 남다』, 한국고전번역원, 2018, 113~114면.

4) 장효현, 『소남 심능숙의 산문문학 연구 - <이은전>을 중심으로』, 『동양학』 3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1.

5) 진민희, 『소남 심능숙 산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6) 이승수, 『조선시대 인물전승의 ‘패랭이[平涼子] 지식인’ 형상』, 『역사민속학』 3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II. 이패랭이에 대한 기록과 고증

현재까지 확인한 이패랭이 관련 현전 작품은 총 12편이다. 정확한 창작 연도를 알 수 없으므로 편의상 작자의 생년을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작품명	문체	저자, 문집명	부기된 시
1	<李平涼>	한문 단편	李東允(1727~1809), 『樸素村話』 3冊	<卽吟><咏鶴詩>
2	<平涼子傳>	전	徐滢修(1749~1824), 『明阜全集』 卷14	-
3	-	한문 단편	成海應(1760~1839), 『研經齋全集』 卷18, <談異>	-
4	<異人 李平涼>	시화	姜浚欽(1768~미상), 『三溟詩集』	<贈人><除夜> <詠白鷺><詠老妓>
5	<李廷楷傳>	전	柳本學(1777~1842), 『問菴文藁』	-
6	<李巖傳>	전	沈能淑(1782~1840), 『後吾知可』 卷5	-
7	-	한문 단편	徐有英(1801~1874), 『錦溪筆談』 上冊	-
8	-	한문 단편	編者未詳, 『破睡錄』	<詠老妓><詠白鷺> <偶吟>
9	<平涼道人>	한문 단편	編者未詳, 『古今笑叢』	<老妓><白鷺> <偶吟>
10	-	한문 단편	編者未詳, 『鷄鳴漫錄』 坤	<次庚字韻>
11	-	한문 단편	編者未詳, 『野談奇聞』	<老妓><白鷺> <偶吟><又>
12	<李巖-野鶴>	시	張志淵(1864~1921), 『大東詩選』	<野鶴>

이패랭이에 대한 실질적 고증을 위해 주목해서 살펴야 할 자료는 먼저 성해응과 유본학의 것으로, 이들은 모두 이패랭이의 이름을 ‘이정해(李廷楷)’라고 확정하였다. 성해응은 이정해의 본관이 완산(完山)이며 젊은 시절 광주(廣州)에서 거주하였고 훗날 파주(坡州)에서 객사했다고 하였다. 이어서 윤동수(尹東壽, 1748~?) 에게 들은 일화를 소개하는데, 윤동수는 파평 윤씨로 파주에서 거주했다. 성해응이 윤동수를 거론한 이유는 인물과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

기 위해서이다.

유분학은 이정해가 벌열가의 자손으로서 흥덕리(興德里)에 거주하다가 도를 구하고자 출가했다고 하였다. 흥덕리는 현재 서울대병원 근처로 추정되는데, 일찍이 이정귀(李廷龜, 1564~1635)가 흥덕리에 대해 서울의 동쪽에 위치한 본인 가문의 세거지라고 일컬은 바 있다.⁷⁾

가) 이정해는 完山사람으로, 젊은 시절에는 廣州에서 거주하였다. … 훗날 그는 坡州의 객사에서 죽었다. 오늘날 奉化 尹東壽에게 듣기로는, 정해가 麻田에 있는 한 인척 집에 가서 간장을 마시려고 구하였는데, 집안사람들은 평소에 그가 간장을 잘 마시는 것을 알아 여러 그릇을 퍼주니 즉시 다 마셔서 비워버렸다고 한다. 그가 죽은 후 그를 따르던 자들이 鳥嶺으로 가는데 흰 사슴 한 마리가 길가에 있고 정해가 바위 위에서 자고 있었다. 그를 따르던 자들이 놀라 말했다. “공이 돌아가셨다고 여겼는데, 공은 죽지 않으셨구나!” 정해가 일어나, “너희는 어찌 예까지 따라왔느냐?” 하고서는 사슴을 타고 사라졌으니 그가 간 곳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이는 윤 씨 어르신께서 분명히 들은 것이다. 아마도 세상에 소위 신선이라 불리는 자들은 凡人들과 자취가 섞이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다. 진실로 경솔하게 논할 수 없는 일일 지어다!⁸⁾

나) 이정해는 자가 君範, 호는 土庵이다. 집안이 대대로 고위대관을 지내며 서울의 興德里에 거주하였으나 도를 구해 세상을 버린 자였다.⁹⁾

또한 이동운은 이패랭이의 신원에 대해 ‘이정소의 족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¹⁰⁾ 이정소(1674~1736)는 본관이 전주, 자는 여장(汝章), 호는 춘파(春

7) 『月沙集』 卷47, <贈吏曹參判司憲府監察金公墓碣銘>: 光山之金, 代有名人, 至我光廟朝, 有諱禮蒙, 工曹判書, 謚文敬公, 德業文章, 冠絕一時, 世居漢城東興德里, 與吾祖樗軒文康公家比隣, 暮年官閑杖屨來往, 人望之如神仙, 里中故老, 至今猶能傳說, 兩家子孫, 各守舊業, 遂爲東村世交.

8) 成海應, 『研經齋全集』 18, <談異>; 李廷楷完山人, 少居廣州. … 後死於坡州之店舍, 今因尹奉化東壽聞, 廷楷往麻田一姻家, 求飲醬, 其家知素善飲, 出數盆卽吸之盡, 其沒後, 門徒適往鳥嶺, 一白鹿在路傍, 廷楷倚石上而睡, 門徒驚曰: “謂公死矣, 公乃不死耶!” 廷楷起曰: “若何從至也?” 仍騎鹿去, 不知所之, 此尹老所聞也. 豈世所稱神仙者, 多混跡凡庸, 故人多不能知也歟? 土固不可輕論哉!

9) 柳本學, 『問菴文藁』, <李廷楷傳>: 李廷楷字君範, 號土庵. 家世簪紳, 居京師之興德里, 得道遺世者也.

10) 李東允, 『樸素村話』 2, <李平涼>: 蓋嘗聞之, 李平涼者, 卽故贈判書廷燾之族孫也.

坡)로, 1714년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지평·정언을 맡다가 신임사화(辛壬士禍)를 통해 노론의 핵심 인물이 된 후 좌승지·병조참판까지 역임했다.¹¹⁾ 신임사화와 관련해서는 서유영의 『금계필담』에 실린 자료를 추가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유영은 이패랭이를 설명한 뒤 당시 이패랭이를 자칭하였다는 인물로 이희지(李喜之)를 거론하였다. 이희지는 목호룡의 무고에 걸려 장살로 죽은 인물로, 경종을 독극물로 살해하려 했으며 왕을 비방하는 노래를 지었다는 죄목을 얻었다. 이희지는 문재(文才)가 뛰어나기로 이름이 났으며 당시 저명한 문사들과 교류하였다. 이덕무는 이희지에 대해 ‘문장력은 막힘이 없이 우아한데다가 풍치 또한 충분하다’고 평한 바 있다.¹²⁾ 중요한 점은 이희지와 같은 사대부 문사도 스스로를 ‘평량자’라 일컬었다는 것이다.

다) 이패랭이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仙人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 응재 이희지 역시 ‘평량자라 자칭하였다. … 응재는 신임무옥을 당하였을 때 『속영정행』을 지음으로써 화를 매우 혹독히 받았다. 선비는 바야흐로 위태로울 때에는 언행을 삼가야 함이 옳으니 이 같이 시를 지은 것은 마땅치 못한 것이다.¹³⁾

한편, 심능숙의 <이은전>에는 당대 이패랭이의 유명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11) 이정소가 노론의 핵심인물이었던 사실은 辛壬士禍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경종실록』을 살펴보면 1721년(경종1) 8월 20일, 병이 많고 후사가 없는 경종에게 이정소가 연잉군을 세제로 올리도록 청하는 상소를 올림을 시작으로, 노론 4대신으로 일컫는 金昌集(영의정)·李健命(좌의정)·李頤命(영중추부사)·趙泰采(판중추부사) 등이 한밤중인 2경에 청대하여 입시하였다. 그들은 경종에게 후계자를 속히 결단 내리기를 종용한 끝에 윤희를 받아 낸 다음, 다시 직접 인원왕후 김 씨의 手筆을 받아오도록 요구하였다. 4경에 다시 김창집 이하 신하들이 입시를 허락하도록 재촉하니, 파루 후에 경종이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慈殿의 수필을 보인 후 연잉군을 후계자로 삼는다는 전지를 써서 내도록 하였다. 이에 만족하지 않은 노론은 1722년 세제의 대리정종을 강행하고자 趙聖復으로 하여금 상소하게 하였다. 그러나 1722년 3월에 陸虎龍이 ‘노론이 세자 시질의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라고 상소를 올린 것을 시발점으로 소론은 경종에게 유배된 노론 사대신을 賜死하게 하였고, 이로써 대다수의 노론인사를 제거하였다. 이 때 이정소 또한 영해에 유배되었다가, 1725년 영조의 즉위로 해배되어 좌승지·병조참판을 지냈다. 이상의 사건을 노론의 입장에서 辛壬士禍라 칭한다.

12)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 34, <清脾錄三>: 李凝齋喜之字士復, 流利韶雅, 綽有風致.
 13) 徐有英, 『錦溪筆談』, <李平涼子>: 李平涼子不知許人, 或稱仙人. … 李凝齋喜之, 亦自號平涼子, … 凝齋當辛壬誅獄, 以作續永貞行, 受禍最酷. 士夫方其時危, 行言遜可矣, 不宜作詩若是也.

라) 산행할 때에는 간혹 패랭이를 쓰고 도복을 입었는데, 방외를 유람하는 선비들이 저잣거리에서 많이 그를 따라 입었다. 세간에는 그를 혼칭하는 자도 많았다. 조정에서 그를 시험해보고자 했는데, 험뜯는 자가 “방외에는 헛된 명성이 많습시다.”하니 마침내 그만두었다.¹⁴⁾

마) 이때 서울과 진라도 간에 이패랭이라고 칭하는 자가 여러 명 있었으니, 城市와 山林에서도 모두 패랭이를 썼다. 공은 홀로 산에 들어갈 때마다 패랭이를 옷칠하여 썼으므로, 아버지께서도 검은색의 작은 복건을 쓰셨는데, 겨우 어깨를 덮을 뿐이었다. 공의 사적은 매우 기이하나, 세상 사람들이 억지로 끼워 맞추어 더욱 신이하여졌으니 모두 삭감하고 신지 않는다.¹⁵⁾

서울과 호남지역 선비들이 두루 이패랭이를 흠모하여 복색을 따랐다고 하였으니, 이희지의 경우와 심능숙의 말에 따르면 복색을 따라 입는 추종자의 범위가 방외를 유람하는 선비뿐만 아니라 경화사족에까지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러는 심능숙의 아버지인 심윤지(沈允之)와 같이 패랭이 대신 검은 복건을 쓰기도 했다. 더욱이 조정에서 그를 시험해보고자 불러들였다는 것은 그의 문식과 재주가 세간에 이미 널리 이름이 났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험뜯는 자’로 인하여 조정으로 나아가는 일이 막히게 되었다고 했는데, ‘험뜯는 자’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해석이 가능하나 노론으로서 이패랭이의 출신문제가 제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외에도 김려(金鑪, 1766~1821)의 <장생전(蔣生傳)> 말미에는 그의 동생 김선(金鑄, 1772~1833)이 지은 <평량자전>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기록되었지만 전하지 않는다.¹⁶⁾ 또한, 이규경의 <도장총설(道藏總說)>에서도 스승의 전수 없이 여러 책에 흩어져 나오는 선인(仙人) 중 한 명으로 이정해를 언급하고 있다.¹⁷⁾

14) 沈能淑, 『後吾可知』 5, <李嶮傳>: 山行或着平涼笠道服, 方外遊士多効着行于城市, 世亦混稱焉, 有欲試諸朝, 毀者曰: “方外多虛名.” 遂止焉.

15) 위의 글: 時京湖間, 有稱李平涼子者數人, 城市山林, 皆着平涼子. 公則獨於入山, 漆平涼子而着焉, 家君着皂色小幅巾, 纔覆肩而已. 公之事跡太奇, 而世人傳會益神, 皆刪而不載云.

16) 金鑪, 『瀟庭遺藁』 卷9, <蔣生傳>: 然生不能誠格于父, 不能成家道, 頽然與禽獸同羣, 無足稱也. 然聞其事, 未及見其人也, 及讀厚園, 平涼子傳, 益瞿然矣. 夫世固有若蔣生者.

1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經史篇 2·道藏類 1』 <道藏總說>: 無師授而散見諸書者, 南越·崔湯·張世美·姜貴千·丹陽異人·李光浩·岬寺寓僧·金世麻·文有彩·鄭之升·李廷

기왕의 연구에서는 이패랭이 관련 서사의 주인공을 노론의 별열가 이정소의 족손인 이정해로서 단일 인물이라 추정해왔다. 그러나 이패랭이와 비슷한 후대 인물유형인 김삿갓이 김병연 외에 여러 명의 방랑시인 서사가 혼합되었다는 주지의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패랭이 역시 2인 이상의 서사가 섞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검은 패랭이를 쓰고 이패랭이라 자칭하는 인물이 많았다는 기록이 그 가능성을 높여준다.

실제로 이정해의 족보를 확인한 결과, 심능숙이 이패랭이로 소개한 이은과 주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정해는 전주 이씨 효령대군과의 후손으로, 조부는 이후송(李後松, 1698~?), 부친은 이동세(李東世, 1731~1774, 증좌승지)이며 모친은 진주 강씨(晉州 姜氏),¹⁸ 처는 연일 정씨(延日 鄭氏) 정하식(鄭夏湜)의 딸, 아들은 이응우(李膺宇)이다. 이정소는 양녕대군과의 후손이기에 몇몇 작품에서 이정해를 이정소의 ‘족손’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정해의 생몰년이 1763년(계미) 6월 2일에서 1841년(신축) 11월 10일로 기재된 것과 심능숙(1782~1840)이 <이은전>에서 서술한 정황이 불일치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은은 호서사람으로 초명은 이평(李坪)인데, 부친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고 모친은 최씨라 하였다. <이은전>은 이은에 대해 가장 상세한 기록이라고 당대인들에게 평가받은 바 있으며, 심능숙 스스로도 정보의 사실성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인 작품이다. 따라서 이은 가문에 대한 정보가 오류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대에 기술된 이정해와 이은의 인적정보가 이렇듯 상이하다면, 두 사람은 명확하게 다른 사람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이패랭이 서사에 이정해와 이은의 서사가 얼마나 혼재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동시대 기록자라 하더라도 이미 항간에 두 사람의 서사가 뒤섞여 구전된 것을 차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본고가 정리한 12편의 현전 작품은 기본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서사라는 점, 저명한 문인들에 의해 정리된 문체로 창작되었다는 점과 함께, 작자와 작품 내 이패랭이 교유자의 범위가 대부분 노론계와 친노론계 경화

楷·郭再祐·金德良·李之藹·鄭斗諸人, 而隨聞見記, 故漫無次序.

18) 『韓國系行譜』에서는 姜杵의 딸로, 『장서각기록유산DB 왕실족보』에서는 姜杭의 딸로 기록하였다.

사족 일가로 일정하다는 점 등에서 김삿갓만큼 다수의 인물 서사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III. 이패랭이 서사의 중첩과 변주

본장에서는 각 작품에서 이패랭이 서사의 주된 소재를 기인(奇人)이 된 연유, 뛰어난 문식(文識), 신선술 등 3가지로 추리고, 작자의 문학적·계급적 특징이 반영된 서사의 중첩과 변주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2편에 이르는 작품 내의 서사적 변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작자와 이패랭이의 교유관계, 작자의 계급적 위치, 그리고 작자의 문학적 지향점 등 작품론적 관점과 작가론적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다각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패랭이와 작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작자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패랭이와 직접 교유한 작자로 심능숙·성해옹이 있다. 이들은 둘 다 아버지가 이패랭이와 교유하여 어렸을 때부터 이패랭이와의 다양한 경험을 기술하였다.

둘째, 이패랭이와 동시대에 살았으나 일화만 전해 듣고 작품을 기술한 작자로 이동윤, 유본학, 서형수, 강준흠 등이 있다. 유본학의 아버지 유득공 역시 서얼 출신이었으나 박지원과 같은 북학파였고, 박지원은 심능숙과 같은 詩社에서 활동하였다.¹⁹⁾ 서형수는 심능숙의 절친 김노겸의 장인이다.

셋째, 이패랭이 사후에 입전한 작자는 서유영이다. 서유영은 심능숙에게 문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성해옹·심능숙·서유영의 경우를 보면, 이패랭이의 서사가 일정한 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교유한 작자, 동시대 비교유 작자, 후대 작자 등으로 구분한 작자층의 특징은 각 작품마다 반영되어있다. 특히 직접 교유한 작자층은 여타

19) 청년기가 시작되는 1795년부터 1798년, 14~18세까지 심능숙은 南洞詩社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남동시사는 모두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로 科詩와 科文을 공부하는 모임인 南社는 연암 박지원을 포함, 洪瀉, 李年秀, 李翺模, 李鍾弼을 주축으로 하였으며 ‘七七會’라고 불리기도 했다. 『후오지가』 권1에는 홍의가 서문처럼 쓴 <南社詩舍>이라는 제하의 주가 길게 붙어있는데, 칠칠회에 대한 에피소드가 주목을 끈다. 마치 박지원의 말을 그대로 듣는 듯 생생하게 옮겨놓은 홍의의 주 뒤로, 심능숙이 지각한 별로 지어올린 시 3편이 이어서 실렸다.

의 작자와는 달리 대상에 대해 훨씬 세부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작자와 이패랭이의 교유관계만으로는 각 작품에 반영된 서술방식의 차이가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성해옹의 부친인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은 북학파의 핵심 문인이었으나 서얼 신분이었다. 성대중은 홍화문과 창경궁 사이 동남쪽 담장의 궁문인 선인문(宣人門)²⁰ 쪽에서 거주했는데, 여기에 이패랭이가 자주 들러 식사를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심윤지·심능숙 부자만큼 이패랭이와의 교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후술을 통해 더 설명하겠지만, 성해옹 부자가 주객 관계로 이패랭이와 만났다면, 심능숙 부자는 이패랭이를 스승으로 모시며 사상적인 교감까지 가능한 관계였다.

1. 기인(奇人)이 된 연유

성해옹과 이동윤의 자료는 야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내와의 비극적인 사건을 가장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패랭이가 글공부보다 여색에 더 집중했다는 점, 이를 참지 못한 부인이 남편의 글공부를 독려하기 위해 자결한 점, 그리고 홀어머니를 버려두고 출가를 감행한 점 등은 사대부 문인들에게도 충격적이고 문제적인 사건이었다. 이 중 가장 흥미를 유발하는 일화는 단연 아내와의 갈등과 비극적 결말이며 부인으로 인해 기인이 되었다는 기록은 성해옹과 이동윤의 작품이 상세하다.

바) 李廷楷는 完山사람으로, 젊은 시절에는 廣州에서 거주하였다. 장가를 갔는데 처의 아름다움에만 빠졌기에 처가 이렇게 말하였다. “저 때문에 낭군께서 곤란해지셨으니, 만약 다시 저에게 오신다면 저는 죽겠습니다.” 정해가 “알았소.”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처에게 갔다. 처가 말하길, “저는 낭군께 죽겠다고 약속을 했사오니, 낭군께서는 그 약속을 돌아보지도 않으시니 저는 죽으렵니다.” 하고는 즉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정해는 아내가 자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것을 한스럽게 여겼으니 어찌 살 수 있었겠는가? 이에 밭과 집과 노비들을 모두 버려두고 사방으로 유람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까 두려워 자칭 ‘이패랭이’라 하고 다녔으니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인하여 일컬은 것이

20) 성종 때 세워지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때 재건되었으나 1857년(철종 8)에 다시 소실되었다. 현재의 문은 고종 연간에 재건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여지비고』에 의하면 이 문의 예전 이름은 瑞麟門이며, 東宮의 정문으로 조정의 신하들이 출입하였다.

다. 항상 나를 만나면 ‘누군들 다시 그리 하지 않겠소?’라고 이처럼 말하였는데 아마도 처의 일을 한탄하는 말일 것이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에 宣人門 바깥에 집을 두시었다. 고기를 굽고 모임을 열었을 때 정해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매우 걸신들린 것 마냥 음식을 먹으니, 葉下 權公이 “그 사람, 먹고 마시는 모습이 정상은 아니구려.” 하였다. 나도 심히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다.²¹⁾

사) 장가를 들에 처가 아름답고 고우니, 이패랭이는 여기에 온통 마음을 뺏겨 글도 안 읽고 집밖으로도 나가지 않으며 밤낮 아내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처가 간언하여도 듣지 않으니 이렇게 말하였다. “장부라면 본디 글 읽고 몸과 마음을 수련해서 큰일을 이뤄야 하거늘, 일개 아녀자 때문에 자신을 버리시는군요! 제가 죽어서라도 이 풀은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살하였다. 이에 이패랭이는 미쳐버려 집을 뛰쳐나가 뛰어난 산수를 유람하고 풍월을 읊었으니, 간혹 몇 푼의 돈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고는 했다. 매년 喪餘日이 되면 반드시 5緡의 돈을 가지고 와 제사를 돕다가 제사가 끝나면 즉시 떠나니, 사람들이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²²⁾

성해응은 이패랭이가 집안의 과객(過客)으로 자주 들렀으므로 패랭이를 쓴 연유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패랭이와 아내의 비극적 서사, 아내에 대한 이패랭이의 죄책감 표출, 그리고 이패랭이의 기이한 식성에 대해 서술한 대목은 여타의 글에서 발견할 수 없는 현장감이 돋보인다. 이처럼 성해응이 이패랭이와의 직접적 교분을 강조하는 까닭은 이패랭이 서사에 신빙성을 더욱 높이고자 꾀함이다.

이동윤 역시 아내가 죽고 이패랭이가 ‘미쳐버려 집을 뛰쳐나가’게 되었고 매년 기일에만 집으로 돌아가 제사를 돕고 떠난다 하였다. 성해응과 이동윤은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아내와의 비극적 서사를 강조하고 이패랭이의 기인적

21) 성해응, 앞의 글: 娶妻而美耽之, 妻曰: “以吾之故, 君困矣, 若復來就我, 我將死.” 廷楷曰: “諾.” 未幾又就之. 妻曰: “吾與君約死, 而君不之顧, 吾死矣.” 卽自縊死. 廷楷恨其以己而致之死, 何以養爲? 遂棄田宅僕隸, 遊於四方, 畏人識之, 自稱李平涼子, 從所戴而稱之也. 常偶言縱我如此, ‘渠豈復然乎哉?’ 蓋恨妻之辭也. 先君子嘗家宣仁門外, 燒肉爲會, 廷楷聞而至, 食之甚饒. 葉下權公曰: “其食飲非常性也.” 余亦不甚異之.

22) 이동윤, 앞의 글: 及娶妻美而艷, 平涼蠱心于此, 不讀書, 不出入, 晝夜不暫離. 其妻諫而不入, 乃曰: “丈夫固當讀書修身以大事業, 而乃由一婦人, 而自棄其身! 吾死不忍見此狀也.” 遂自殺. 平涼乃發出狂, 游賞山水吟弄月, 或圍棋以賭以數棄錢. 每歲喪餘日, 必以五緡錢來助祭, 祭罷卽去, 人不知其所之云.

생활이 ‘광인(狂人)’의 모습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이 이패랭이가 출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서술자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일화였기 때문이다. 이패랭이와 부인의 비극적인 일화는 동시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후일의 독자에게도 사뭇 관심을 유발시킨다.

반면 심능숙은 이패랭이와 부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가 부인의 사후에도 채취를 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한줄 평만 적어두었으나, 유독 유복자로 태어난 이패랭이가 출가를 한 점을 여러 설화를 차용하여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패랭이와 직접 교류하였던 두 저자, 성해옹과 심능숙의 서술적 태도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이다.

<이은전>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부분은 여타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이패랭이의 출가가 홀어머니의 사후에 이뤄진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은전>은 어머니의 생전에는 유람 정도에 그친 것이고, 모친 생전에 스승 신옹(申翁)을 만났으나 모친 사후 3년 상까지 마치고 5년 뒤에 출가를 한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식이 높은 이패랭이의 유년기 학업은 어머니를 통해 이뤄졌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은전>의 이패랭이와 홀어머니 서사는 영웅설화의 탄생담과 유년기담의 전형성을 강하게 띄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의 인용문(아)는 심능숙이 직접 입전한 <이은전>의 본문이며 인용문(자)는 이패랭이의 교류자였던 죽재 이연수에게 들은 바를 정리한 기문의 첫 번째 칩이다.

아) 이은은 자가 子山이고, 호서 사람으로 초명은 坪이다. 배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가 막 태어났을 때에 유성이 울타리로 당도해 나타났었다. 그는 혼자서 말을 배우고 글도 잘 지었으며 어머니인 孺人 최 씨에게 학문을 배웠다. 장성하여서는 기이한 지식이 많았고, 성격이 높고 굳세어 풍운에 뜻을 두었으며, 언어에는 소홀하여도 천지만물의 이치에는 통달하였다. 어머니를 섬김에는 맡은 소임을 다하였으니, 멀고 가까운 지방에 있을 때에도 병이 드시면 갑자기 마음으로 느껴 집으로 돌아왔다.²³⁾

자) 공의 어머니 孺人 崔氏는 총명과 지혜가 매우 뛰어나 어릴 적부터 여러 오라

23) 심능숙, 앞의 글: 李嶠字子山, 湖西人, 初名坪. 胎居父沒, 方生有流星當扉而現. 自學語善屬文, 受學於母崔孺人. 及長多異識, 抗爽有風雲志, 闊略言語, 曉暢天地. 事母盡職, 遠近在方外, 病輒心觸歸.

비들이 책 읽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잠잠히 하여 묵묵히 암기하였다. 외할아버지가 醫書를 읽는 것을 보다가 천기의 움직임을 논하는 대목에 이르자, “이것은 천기의 선후를 변별한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하니, 듣는 이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다. 공을 잉태하고서 지아비 상을 당하였는데, 『曆書日錄』에 공이 처음 태어난 전말을 기록해둔 것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9월 9일 해산할 당시, 유성이 집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오니, 소들은 말뚝에서 놀라고, 닭들은 헛대에서 울어댔다. 이때가 丑時였다. 공이 3살일 때 최 부인이 접시꽃 따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것은 기운이 새어나오는 풀이예요.’ 최 씨 부인이 놀라서 물었다. ‘네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공이 답하길, ‘접시꽃 아래 흙들이 모두 떠 일어나서, 이걸 보고 알았지요.’라고 했다.” 이는 『역서일록』에 실린 바를 말한 것이니, 竹齋 李年秀가 친히 보고 전한 것이다. 공이 8살에 <黃州竹樓記>를 읽었는데, 마을에서 구걸하던 승려가 귀 기울여 듣고 말하였다. ‘기이하도다! 천상의 사람이 세상의 책을 읽는구나.’ 최 부인이 사람을 시켜 이를 묻게 하니 승려가 웃고는 떠나버렸다. 이는 죽재가 전한 것이다.²⁴⁾

이패랭이와 직접 교유한 작자층으로서 성해응과 심능숙의 서술 태도는 어찌서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첫째, 각각 이정해와 이은이라는 다른 인물을 대상으로 이패랭이 서사를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의 신분적 위치가 글쓰기 방식에도 반영된 까닭이다. 성해응은 서얼 집안 출신의 문인으로서 경화사족 출신의 심능숙보다 훨씬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서형수의 <평량자전>을 두 작품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성해응의 이패랭이 서사는 <담이>의 일부이지만, <이은전>은 심능숙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인물전이였다. 무려 27면에 걸쳐 기재된 <이은전>은 방대한 분량만큼이나 구성 역시 복잡한데, 이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본문 앞뒤로 배치한 서문과 기문은 작품 내적인 내용과 작품 외적인 상황을 상호 보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이은이 죽고 얼마

24) 위의 글: 公之妣崔孺人聰慧絕倫, 自兒時見諸兄讀書, 潛心默記, 見其外舅讀醫書, 至運氣之論曰: “此不過先後天之辨.” 聞者驚異之. 及孕公而遭所天之喪, 有曆書日錄, 錄公始生之顛末云. 錄曰: “九月九日解媵時, 有流星當戶而入, 牛驚乎織, 鷄鳴其埘, 是丑時也. 公生三歲, 見崔夫人摘葵曰: ‘此是洩氣之草.’ 崔夫人驚曰: ‘汝何以知之?’ 答曰: ‘葵下土皆浮起, 以此知之.’” 此出日錄所載, 而竹齋李年秀親見而傳之. 公八歲, 讀黃州竹樓記, 有僧乞于里, 側耳曰: ‘異哉! 天上人讀人間書.’ 崔夫人使人問之, 僧笑而去. 此出竹齋所傳.

지나지 않아 주변 교류자들을 통해 소재와 일화를 모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이 특기할 지점이다.²⁵⁾

	부제	내용
序文	附李公序	1) 李翊模의 서문 2) 이익모의 서문 말미의 小註 ：李書九와 李年秀가 편지로 이익모의 서문과 심능숙의 전 평가
本文	-	1) 僕永의 古事를 활용하여 李巖의 유년기와 청년기 서술 2) 이은의 神異談 ① 이연수와 관련된 일화 ② 鄭淇와 관련된 일화
記聞	附山寺記聞 (原註: 李公翊模所記)	1) 이익모의 <山寺記聞>에 붙인 글 ：三郎 고사와 최치원의 『승문연회』 인용 2) 심능숙의 附言
	此以下四條竹翁李年秀所記	이연수에게 듣고 서술한 이은의 신이담 (총 18칙)

<이은전>의 문체적 지향성은 이익모의 서문 말미 <부이공서>와 그 협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이공서>는 이서구와 이연수가 편지로 이익모의 서문과 심능숙의 전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이은전>의 문학적성과 사료적 가치에 대해 논하고 있다.

차) 이 전은 서문을 합해 한 편을 이루는데, 태사공의 <백이전> 문체를 깊이 체득하여 상세하나 미미하지는 않으며, 높다랗되 가파르지는 않다. 三郎에서 이야기기를 시작한 것은 백이가 許由를 가탁함으로써 왕위를 주고받은 일의 본말을 깨우치게 한 일과 같으며, 武侯에서 끝맺은 것은 太史公이 孔夫子에게 가탁하여 그 사람의 불우함을 슬피하게 한 일과 같다. 선생의 言外之意를 정확히 이해하고서 서문과 논찬을 쓸 수밖에 없으니, 그런 뒤에야 선생의 전이 완성될 수 있고 당세의 뛰어난 글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강산이 竹齋 李年秀에게 답한 편지에 이렇게 썼다. “李公의 傳을 세세히 살피자면, 문장의 序를 쓴 것은 예리하나 잡스럽지 않고, 그 사실들을 기록한 것은 깊이 있으나 어긋남이 없고, 행적을 논한 것은 정직하면서

25) 진민희, 앞의 논문.

삿되지 않으니, 은근하면서도 노골적이지 않다오. 침착하고 웅건하면서도 비분하고 강개함은 前漢의 기색에서 유래한 것이오. ‘검을 짚고 크게 노래를 부르나’라는 구절에서부터 10여 행은 『禮記』의 檀弓편과 『魯論』의 문답구법이 완연하오.”²⁶⁾ 이렇게도 말했다. “본문 내 -자(之)를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도 자(子)가 원용고아하고, 또 허다한 사건과 행적을 기록하고 공명정대하게 조치함에 곧바로 향했다오.”²⁷⁾

특히 이들 집단이 추구하고자 했던 문체는 진한고문(秦漢古文)이었다. 진한고문은 당송고문에 비해 4인 이하의 간결한 문구를 주로 사용하며 단구의 나열을 통해 짧은 호흡과 함께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안정적이며 장중한 미감을 제시한다. 여기서 단구를 구성하는 지수에 변화를 주면 불안정한 짧은 리듬을 통해 기세와 호흡이 제고되어, 특히 격정적인 정서, 급박한 어기(語氣), 긴장된 국면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이은전>이 ‘지(之)’자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문체적 분석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단구의 운용으로 인해 허사의 사용을 제약하고, 이로써 문장의 기세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진한고문론은 서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진한고문의 서사가 높게 평가받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역사나 인물에 대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높은 형상성과 독자를 압도하는 문세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결한 장면의 제시, 생생한 묘사, 비유와 우언 등의 표현은 형상성을 제고시키며 과장, 경책, 전환 등의 수사는 문세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하였다.²⁸⁾

이는 심능숙이 <백이전>의 문체를 체득하여 <이은전>을 지었다고 평했다는 부분에서 <이은전>의 서술의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문장이 시사하는 것은 첫째, 심능숙이 <이은전>을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료로서 창작했다는 점이다. 둘째, 내용적으로는 도입부의 신라 仙人 三郎과 결론

26) 검을 짚고 ... 완연하다오. : 鄭錡에 관련된 일화 지칭.

27) 심능숙, 앞의 글: 是傳合序論爲一篇, 深得太史公伯夷傳之體, 詳不至細, 高不至踈, 起於三郎, 若伯夷之借許由, 喻授受之源委也, 終於武侯, 猶太史之托夫子, 悲伊人之不遇也, 正獲先生言外之志, 乃不得不序, 不得不論, 然後, 可以完先生之傳, 可以觀命世之文. ... [薑山答竹齋李年秀書曰: “細觀李公傳, 序其文則動而不雜, 記其事則深而不詭. 論其跡直而不回, 婉而不露. 沈雄悲慨, 來西京氣色, 自倚劍以弔十餘行, 宛有檀弓·魯論問答句法”, 又曰: “篇內無一之字, 而字句圓融古雅, 且記許多事跡, 直向正大處措置.”]

28) 하지영, 『18~19세기 진한고문론의 전개와 실현 양상』, 소명출판, 2019.

부의武侯를 입전인물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이패랭이의 인물평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2. 뛰어난 문식(文識)

서형수의 <평량자전> 또한 이패랭이 관련 다른 서사 작품과 매우 다른 양상이며, 심능숙의 <이은전>과 함께 문학성이 상당히 높은 작품으로 꼽을 수 있겠다. <평량자전>은 장단(長湍)의 화장사(華藏寺)²⁹⁾로 가는 길이던 윤계(尹埜, 1622~1692)³⁰⁾·조사석(趙師錫, 1632~1693)³¹⁾·경 모(慶莫)와 이평량의 이야기이다. 성해응의 작품과 같이 파주의 객점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았다.

서형수의 <평량자전>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사평(史評)에 이패랭이를 ‘일민(逸民)’이라 정의한 점이다. ‘일민’이라는 단어의 출처는 『논어·미자(論語·微子)』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일민은 백이·숙제 등과 같이 유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당국의 정치적 사상과 반대되는 입장을 고수해 속세에서 벗어나 숨어 사는, 덕이 높은 사람을 뜻한다. 즉, 서형수는 ‘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패랭이를 은둔한 현자로 평가한 것이다.

둘째, 이패랭이에 대한 사평으로 그가 절풍건이 아닌 패랭이를 쓴 것을 ‘애석하게 여긴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다. 그는 이패랭이가 이름을 감추는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나, 선비로서의 자의식을 버리고 백성들이 쓸 만한 패랭이를 써서 ‘이패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려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셋째, 경사류에 대한 논의를 문답형식으로 구성하여 이패랭이의 경학적 지식과 문재를 강조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은전> 역시

29) 경기도 장단군 寶鳳山에 있던 傳燈寺의 末寺. 고려 때에 서축 승려 指空이 개창했다.

30) 본관은 海平. 자는 泰升, 호는 霞谷. 영의정 尹斗壽의 증손이고 아버지는 첨정 尹勉之이다. 1650년(효종 1) 사마시에 합격하고, 1662년(현종 3)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승문원에 들어갔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1682년부터 2년간 戶曹判書를 지내고, 1684년부터 2년간 刑曹判書 등을 역임했다.

31) 본관은 楊州. 자는 公學, 호는 晚悔 또는 晚休·香山·蘿溪이다. 아버지는 형조판서 趙啓遠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申欽의 딸이다. 조사석은 趙泰耆의 아버지이다. 1662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1687년에 우의정, 1688년에 좌의정이 되었다. 1691년 전 해에 있었던 왕세자책봉하례에 참석하지 않은 죄로 固城에 유배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복관되었다.

이패랭이의 유가적인 면모를 강조하였고 여타의 작품들에서도 이패랭이의 문제는 반드시 언급하였다.³²⁾

카) 다음과 같이 논한다. 천고의 逸民 중 시종일관 세상에 나오지 않은 자로 巢父, 許由, 長沮, 桀溺, 嚴子陵, 陳希夷와 같은 자들은 모두 그 이름을 숨길 수 없었고, 유독 삼태기를 멘 자와 대바구니 멘 자와 漢水 가의 노인만이 능히 그 이름을 감출 수 있었다. 대개 몸을 감추는 것은 오히려 쉽지만 이름을 감추는 것은 최고로 어렵다. 平涼子は 능히 그 이름을 감추었으니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도다. 그러나 나는 평량자를 애석하게 여긴다. 우리나라의 풍속에 선비는 折風巾을 쓰고 백성은 패랭이를 쓴다. 따라서 經史를 논설함에 절풍건 쓴 자가 있으면 편안히 일상적인 일로 여기지만 패랭이를 쓴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나면 시끄럽게 다투고 기이하게 여긴다. 그런데 평량자는 어째서 절풍건을 쓰지 않고 '평량자'라는 명성과 나란히 하면서 이름을 칭함이 없게 하는가? 그러니 비록 내가 그의 전을 짓고자 해도 할 수 있겠는가?³³⁾

32) 徐滄修, 『明皇全集』卷14, <平涼子傳>: 平涼子不知何許人, 亦不知其姓名, 而以其戴平涼笠, 故稱平涼子云. 我肅宗中年, 判書尹公培, 與相國趙公師錫, 參判慶公某, 俱弱冠相友善. 三人者約與讀書於長湍之華藏寺, 使一力負餼糧, 各袖一種書, 聯翩緩步, 行近高陽之碧蹄店, 平涼子自何跟其後, 問負者曰: “諸公子將何之?” 負者曰: “將之華藏寺讀書.” 平涼子曰: “吾亦之華藏近地, 及抵碧蹄店少憩.” 趙公袖出易, 謂二公曰: “程子易傳, 與朱子本義, 各有所主, 當以何解爲正.” 二公未及答, 平涼子僂僂座隅, 忽轉身微笑曰: “久遊山寺, 嘗聞宿儒之論易矣. 易本爲占筮而作, 則程傳特爲程易, 苟求解易, 其惟本義乎?” 諸公固異其人, 至是益異之, 尹公袖出莊子以試之曰: “逍遙遊中, 自野馬塵埃, 至遠而無所至極, 諸家之解, 紛然相難, 或以野馬塵埃, 爲鵬之所憑而飛, 或以生物之以息相吹以上, 爲正色耶無極耶之引起, 然由前則天之蒼蒼, 竟無歸宿, 由後則此數句, 都不照綴於鯤鵬齊諧之結撰, 而突然出一派橫瀾, 亦嘗聞宿儒之論此矣乎?” 平涼子欣然笑曰: “果聞之矣, 此以在下而仰觀者言也. 鵬飛絕高, 極目力而渺渺乎茫茫乎把捉不定, 故疑之曰彼豈野馬耶, 豈塵埃耶, 豈生物之以息相吹耶, 不特彼不可辨. 天之蒼蒼, 其正色耶, 亦遠而無所至極耶, 皆所以善形渺茫之象, 而下文終之曰, 其視下也亦若是則已矣, 夫注之者多曲說, 而讀之者亦不察文義, 何嘗不可解?” 諸公愈益異之, 慶公又袖出杜詩, 以益試之曰: “青燈死分翳, 缺月殊未生, 兩句義最難解, 亦嘗聞宿儒之論此矣乎?” 平涼子愈益欣然曰: “果聞之矣, 火之將滅也, 必先折飛其火上所翳之燼, 然後乃滅. 故曰死分翳, 兩句死與殊正相對, 殊如『漢書』水上軍殊死戰之殊, 殊即半死之義, 而謂缺月之半死未生也.” 三公大異, 特異之, 既吃飯, 與俱宿坡州店, 縱論古今, 貫穿經史, 至晨鷄喔喔, 猶不寐也. 三公強問姓名, 平涼子不答, 仍請偕之華藏則諾之, 比明, 三公携平涼子, 歷宿尹公丙舍, 將以翌日入山, 睡起竟不知所之, 至今三公家, 傳以爲異事云.

33) 위의 글: 論曰, 千古逸民之終始不出者, 如巢父·許由·長沮·桀溺·嚴子陵·陳希夷, 皆不能隱其名, 獨荷簣者, 荷蓑者, 漢陰丈人, 能隱其名. 蓋身隱尚易, 名隱最難, 平涼子能隱其名, 則庶乎其難矣. 然余爲平涼子惜之, 我國之俗, 士戴折風巾, 民戴平涼笠, 故說經論史, 在折風巾, 則恬以爲常, 一得之平涼笠, 則爭譁以爲奇, 平涼子何不戴折風巾, 并與所謂平涼子之名而無稱焉? 余雖欲爲傳, 得乎?

서형수는 심능숙과 절친한 관계였던 성암(性庵) 김노겸(金魯謙, 1781~1853)³⁴⁾의 장인으로, 김노겸에게 있어서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³⁵⁾ 김노겸의 문집에는 서형수 가문의 고증학적이고 실학적인 학풍을 이어받은 양상이 상당수 확인된다.³⁶⁾ 서형수와 심능숙의 직접적인 교류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패랭이 관련 작품군 안에서 서형수의 <평량자전>과 심능숙의 <이은전>은 유독 이패랭이의 문식을 강조하고 사대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공통점을 나타낸다.

서형수와 심능숙, 두 저자가 비슷한 서술태도를 견지하는 가장 유력한 요인은 먼저 ‘경화사족’이라는 계급적 위치 때문이다. 이계와 조사석은 소론 문벌가 자손이었고, 저자 서형수는 소론임에도 불구하고 노론계 문인과 인척 및 교유 관계를 친밀히 쌓은 인물이었다. 『명고전집』에서 이계와 조사석보다 문체가 뛰어난 이평량의 서사는 서형수의 친노론적 성향이 여실히 반영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김대중에 따르면, 조선후기 경화사족의 계급성이 문학작품에 반영된 두 가지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서형수는 당송팔가의 글을 존송하였으며 조선 내의 소품문은 ‘철 지난 유행’ 내지 ‘한물간 것’이라고 일갈했다.³⁷⁾ 반면 심능숙은 <이은전>에서도 명확히 이야기하였듯이 전한시대(前漢時代)의 글을 숭상

34) 『성암집』 권5에 <祭沈友英叟[能淑]文[辛丑]>에는 심능숙과 33세 정도 되던 해에 함께 시를 지었는데, 시문의 高談確辯함이 돋보였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또한 『성암집』 권3에 수록된 <沈英叟內相恭人金氏哀辭>는 심능숙의 부인에 대한 애사로, 심능숙과 김노겸이 1808년부터 교유한지 3년째이고, 이들의 친분이 남달랐음을 기술했다. 이후 『성암집』에는 다수의 시와 기문에서 심능숙과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다.

35) 『성암집』 권5에 서형수에 관한 제문 <祭外舅明阜徐公[滢修]文[乙酉]>가 실려있다. 10쪽에 달하는 장편의 제문으로, 스승이자 장인인 서형수를 잃은 김노겸의 슬픔이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다. 한편, 서형수의 『明阜全集』 권6에는 서형수가 사위인 김노겸에게 六藝의 성리학적 해석을 설명한 <答金婿元益魯謙>가 실려있다.

36) 이는 경주 김씨와 달성 서씨 양 가문에서 家學을 계승한 인물로서 김노겸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그는 沈能淑·趙翼永·俞秉柱·徐有薰·尹定鉉 등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經學·史學을 비롯하여 음악·언어학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박학하였으며, 당시의 보편적인 학문성향을 탈피하여 주로 고증적인 전거를 위주로 하는 저술들을 즐겨 지었다. 서형수 집안의 가학에 영향을 받은 김노겸의 사상에 관하여서는 한민섭의 연구(『徐命膺一家의 博學과 叢書·類書 編纂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에서 간략하게 소개된 바 있다.

37) 김대중, 『서형수-조선후기 지배엘리트의 보수적 합리성과 그 명암』, 『진단학보』 133, 진단학회, 2019 참조.

하여 배우며 불교와 도선에 심취하고 소품문에 특장을 보인 작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능숙의 문집 전반에는 서형수와 마찬가지로 유가의 보수적인 틀이 유지되고 있다. <이은전>의 이패랭이 역시 효자로서의 면모, 신선술, 경사의 문식이 뛰어난 점 등을 강조해 유량 시인이라기보다는 당시 도선술에 심취했던 소외된 경화사족을 반영한 인물로 묘사되었다. 결국 심능숙과 서형수는 견지한 문학관과 당색은 서로 달랐지만, 경화사족으로서 유가적인 사고 안에서 개성적인 문학 창작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이는 심능숙과 성해옹이 이패랭이와 직접적인 교류자였음에도 완전히 다른 성향의 작품을 창작한 것 과도 상통한다.

두 번째로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을 입전했다는 점이다. 심능숙은 이은을 이패랭이로 명시하며 주변 교류자들의 증언들을 다수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서형수 역시 이정해가 아닌 이은을 이패랭이로 입전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은과 서형수의 시대적 배경이 비슷하다는 점도 이러한 추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편 야담집 『계압만록』의 서사 역시 이패랭이와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 1774~1842)가 詩作을 겨루는 내용만을 다루었다. 특히 ‘이패랭이는 문사로 세상을 조롱하는 사람인데, 글에는 귀신을 호느끼게 하는 것이 많다’거나, ‘시광(詩狂)을 이름 삼았다’는 대목, 그리고 이패랭이가 홍석주와의 시작 내기에서 이겼다는 내용은 이패랭이의 문식을 더욱 강조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³⁸⁾

이패랭이의 시는 <노기(老妓)> · <백로(白鷺)> · <우음(偶吟)> · <증인(贈人)> · <제야(除夜)> · <즉령(卽吟)> · <차경자운(次庚字韻)> · <우(又)> 등 총 8편의 시가 산재하고 있다. 내용은 같으나 제목이 다른 경우와 작품 내 글자 출입이 몇 개 확인된다.³⁹⁾ 이 중 <백로>는 가장 많은 문집에 기재된 작품으로서 이패랭이의 득의작이라 볼 수 있다.

38) 『鷄鴨漫錄』坤: 李平涼子文士也, 弄世人也. 文則有泣鬼神者多矣. 着平涼子, 優遊京鄉, 以此佩號. 又以詩狂爲名也. 聞淵泉奭周文章膽富, 有洞庭爭決之意, 往見敘寒喧曰: “聞閣下文名, 願一決之. 不遠來謁, 尊意如何?” 洪相曰: “依尊意而爲之也.” 乃拈出自東至咸三十韻, 擊鉢成詩, 例各書示之, 互有相勝. 至庚字韻, 李先作示之. 其曰: “天於松柏秋無奈, 地以山川路不平.” 洪相大驚, 闔筆曰: “置之無妨!” 乃相笑而罷.

39) 부록 참조.

타) 성명을 물으니 머리를 숙인 채 답하지 않다가 이윽고 말하길, “나는 이패랭이요.”라고 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패랭이를 쓰고 다니는 까닭일 것이다. 나중에 듣기로는 ‘이패랭이라는 자가 평양과 개성에서 지은 시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이와 뺨 사이에서 맑게 울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아닐는지?⁴⁰⁾

이패랭이의 시를 함께 실은 이동윤과 유본학의 글에 따르면, 그의 시는 ‘놀랍도록 뛰어난 구절이 있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전승되었다고 한다. 평양과 개성에서 시를 지었다고 기록한 것도 유의할 사항이다. 앞서 심능숙은 서울과 호남을, 성해응과 서형수는 파주를 이패랭이의 활동지로 제시하였다.

이패랭이가 사대부에게 인정을 받은 까닭은 결국 그의 문식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문재를 소유한 인사임에 비하여 전승작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는 이패랭이를 ‘시인’이 아닌 ‘이인’으로 남게 하는 결정적 한계이기도 하다.

3. 신선술

이패랭이를 이인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신선술이다. 신선술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양한 설화가 교차적으로 삽입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특이한 식성, 시해(尸解), 바둑내기, 예지력 등이다. 이패랭이가 신선술에 능한 모습은 서형수의 것을 제외한 이패랭이 서사의 공통적인 양상이다. 이는 이패랭이가 당대에 주목받았던 주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패랭이의 도가적 면모와 신선술에 대해서는 초현실적인 내용을 다룬 작품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문학적으로 반영된 서사와 인물의 이면적인 부분을 잘 감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은 대부분 이패랭이를 이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본학의 <이정해전>은 이패랭이의 다른 면모보다 신선술에 주목하여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40) 이동윤, 앞의 글: 問其姓名, 俛而不答, 已而曰: “我李平涼也.” 蓋着平涼子故云爾. 後聞, 有李平涼者, 其於箕城及松京諸作, 響人牙頰云, 無乃斯人耶.

파) 외모는 수척하지만 목소리가 맑고 눈동자가 빛났다. 항상 패랭이를 썼는데, 거친 대나무를 엮어 천한 자들이 착용하는 것이나 도리어 즐겨 쓰면서 행동거지를 몹시 가벼이 하였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를 ‘이패랭이’라고 부르면서 괴이하게 여기고 주목하였다. 그는 기이한 재주가 있음에도 스스로 깊이 숨겼고, 시문에 뛰어나면서 바둑 또한 잘 두었으나 자랑하지 않았고, 經史에 대한 뜻을 물으면 곧바로 응답해주었으며, 시부를 지으면 놀랍도록 뛰어난 구절이 있어 그의 시를 널리 퍼뜨리며 외우는 사람이 많았다. 때때로 사람들과 바둑을 두었으니 내기에서 지면 곧바로 문을 나서서 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는 그의 주머니에 있던 것이 아니요, 남에게 빌려온 것도 아니었기에 지켜보는 자들이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다. 그는 담소를 즐겨하지 않으면서도 능히 남에게 경계하는 말로 대했고, 친지를 慶弔하더라도 경조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만 있다가 자리를 떴다. 술을 마시는 양에 제한이 없었고, 또한 벌꿀과 염도 높은 간장을 좋아해 커다란 주발로 몇 사발이라도 마셨으며, 항상 과일로 밥을 대신하였으나 배고파하지 않았으며, 혹 밥을 먹더라도 네다섯 숟가락이면 그쳤다. 국내의 이름난 산천을 두루 유람하며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어떤 이는 ‘그는 하루에 500리를 다닌다.’고도 하였다. 60여세에 죽으매 후에 어떤 사람이 東坡驛 앞길에서 그를 보았는데, 여전히 패랭이를 쓰고 안색은 평상시와 같았으므로 이 때문에 그가 尸解한 것임을 알았다. 外史氏는 말한다. “내가 이정해의 일을 들은 지 오래되었으니, 단지 그가 세속을 벗어나 노닐던 것만 알고 있다가 지금에야 이정해와 친한 사람에게 그 개략적인 일을 듣게 되었다. 아! 역시 기이하도다! 그가 늘 자신의 자취를 감추었고 시기가 조금 오래 지났으며 설명 또한 상세하지 못함을 애석히 여긴다. 옛날에 范曄이 方技傳을 지으매 무릇 기이한 행적의 사람들치고 수록되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世教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정해와 같은 자 역시 方技類이면서 史家가 수록할 만한 자이지 않은가?”⁴¹⁾

41) 유분학, 앞의 글: 貌瘦而聲清, 眼瞳炯碧, 常戴平涼笠, 製麤竹, 賤者所服, 而願喜戴, 行止飄忽, 故世稱李平涼, 而目之以怪然. 有異術而深自韜晦, 工詩文, 又善奕棋而不自矜, 經史疑義, 叩之輒應, 賦詩有警句, 人多傳誦之. 時與人圍棋, 賭錢不勝, 則輒出戶, 持錢而入, 非其囊儲, 亦非乞諸人也, 見者異之. 不喜談笑, 亦能面人箴規, 慶弔親知而語不及慶弔事, 默坐即去. 飲酒無量, 又嗜蜂蜜及鹹豈醬, 啜至數大椀, 常將果代飯而不飢, 雖或飯, 四五匕即已也. 周游域內名山川, 無不至, 或云日行五百里. 年六十餘而死, 後有人, 見於東坡驛前路, 猶戴平涼笠, 顏色如常, 於是, 知其尸解焉爾. 外史氏曰, 余聞李廷楷事久矣, 但知其游於方外者, 今得其概於廷楷所親人. 吁! 亦奇矣. 惜其常自韜跡, 而年時稍久, 說之又未詳也. 昔范曄, 著方技傳, 凡異蹟人, 無不收錄, 以其關於世教也. 如李廷楷者, 亦方技類而史家之可收者歟?

먼저 벌꿀과 익히지 않은 음식을 즐겨 먹고 소식을 일삼는 것, 며칠씩 굶거나 염도 높은 간장을 다량으로 마셔도 무탈한 것, 폭음을 해도 취하지 않는 모습은 범인의 식습관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묘사는 이패랭이 뿐만 아니라, 신선의 특징을 논할 때 대부분의 작품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부분이다.

또 ‘시해’란, 육신의 형체를 버리고 신선이 된다는 도가의 용어로서,⁴²⁾ 이패랭이 신선술의 신묘함을 가장 극대화 시키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이패랭이의 시해 설화는 앞서 제시한 성해응의 작품에서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이패랭이가 시해로써 육신은 죽었으나 영혼은 죽지 않고 팔도를 유랑하며 다양한 설화를 남겼다고 상상한 것은 이패랭이에 대한 당대인의 애정이 담긴 결과이다.

유분학은 이정해를 입전한 이유에 대해, 남송의 사학가 범엽이 방기전을 지었던 것처럼 교훈적이지는 않으나 사가(史家)로서 전을 수록할만한 방기류(方技類)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사평에 밝혔다. 방기류 인물은 『후한서·일민열전(後漢書·逸民列傳)』·『한서예문지·방기략(漢書藝文志·方技略)』·『한서예문지·수술략(漢書藝文志·數術略)』 등의 용례를 통해 그 통상적 의미를 살필 수 있는데, 대개 약초를 캐러 다니며 신선술을 연마하는 은자(隱者)들을 가리킨다.

또한 ‘이정해와 친한 사람에게 그 개략적인 일을 듣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정해를 단지 방외문사로만 인지하다가 이제야 그의 사적이 상세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했다. ‘이정해와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상이나 앞서 말하였듯 이패랭이와 교유하며 그의 서사를 공유하는 집단, 이를테면 부친 유득공과 이서구가 속해있던 백담과 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은전>은 이패랭이의 신선술을 설명하기 위해 음울과 검술에 능한 면모, 탄생설화, 예지담, 출중한 바둑 능력 등의 예화로 상당 분량을 할애하였다. 심능숙의 생애와 문학을 살펴보았을 때, 이패랭이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이다. 이패랭이와 심능숙의 유대관계가 깊었다는 사실은 <이은전>의 창작 동기에 대하여 이익모, 이서구, 이연수 등 이패랭이의 주변 인물들이 심능숙을 지목하여 입전하도록 한 대목과 심능숙이 이패랭이에게 ‘전수받은 것이 가장 컸다’는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심능숙은 <이은전>을

42) 『後漢書』, <王和平傳>: 尸解者, 言將登仙假託爲尸以解化也.

짓게 된 이유로 이은에게 가장 인정받은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을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술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후오지가』 내의 다른 글에서 그 답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신선술이 아닌가 싶다.

심능숙의 도선취향과 불가사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낙척불우(落拓不遇)의 현실적 처지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심능숙 뿐만 아니라, 당시 중앙 권력에서 소외된 사대부들의 전반적 양상이었다. 이들은 사대부로서의 자의식과 욕망이 현실세계에서 성취되지 못하자, 도선과 불가사상으로 관심을 돌렸다. 심능숙은 이른 시기부터 여러 시회를 통해 홍의(洪漪)나 능허대사(凌虛大師) 등 도가와 불가에 경도되어 있던 인물들과 잦은 교류를 가졌으며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선적 취향을 작품에 형상화하였다.

둘째, 젊은 시절부터 병약한 체질로 신선술을 통해 자가치료를 하고자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심능숙은 자호를 금하(金霞)로 지을 정도로 도선사상에 심취한 인물이었다. 금하라는 것은 채하(彩霞)라 하여 곧 신선들의 음료를 뜻한다.⁴³⁾ 또한 서유영과 함께 속한 낙산시사(駱山詩社)의 계원들과 『참동계(參同契)』를 읽으며 단술(丹術)을 연마하는 모습이 그들의 시문에서 끊임없이 포착된다.⁴⁴⁾

하) 은이 土巖에서 죽자, 세상 사람들이 ‘토암선생’이라고 칭하였다. 여러 공들과 문하생들이 程門의 私謚法에 의탁하여 칭하기를 ‘靖眞先生’이라고 하였다. 또 한 나는 선생에게 제일 인정을 받았고 傳記를 대강 익혔으므로 선생의 전 짓기를 위탁받아 평상시의 사적을 대략 엮어 아래에 나열하였으니, <郭泰傳>에서 열거한 것과 같다.⁴⁵⁾

곽태(128~169)는 『후한서』에 입진된 인물이다. 후한 환제 때 최고의 은사

43) 권복인, 『天游先生文集』 1권, <獻謝金華[霞]贈丹[沈能大號金霞, 又號小楠]>.

44) 이강옥, 『六美堂記』와 『鎬溪筆談』의 비교분석을 통한 소설과 야담계 서사체의 관계 양상 고찰, 『한국학보』 42, 일지사, 1986 참조.

45) 심능숙, 앞의 글: 嶮既沒於土巖, 世稱土巖先生, 諸公及門人, 依程門私謚法, 稱曰: ‘靖眞先生’. 且謂僕最受知於先生, 而粗習傳記, 托爲傳. 略集平日事蹟, 列之於下, 如郭泰傳列云爾.

로서 흥금이 깨끗하고 지질이 높아 한 번 만나는 선비마다 용문에 오를 정도로 명망이 높았다는 이응(李膺) 등과 교류하였으며 특히 낙양에서 중망이 있어 말년에는 제자가 천 명에 이르렀다. 광태는 또한 ‘이곽선주(李郭仙舟)’의 고사와 함께 ‘임종건(林宗巾)’이라는 고사를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진량(陳梁) 지방에서 비를 만나 두건의 한쪽 귀퉁이가 꺾였는데 당시에 그를 숭모하는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일부러 두건의 한쪽 귀퉁이를 꺾어 착용하였다고 한다. 심능숙이 <광태전>을 거론한 것은 이패랭이의 선인과 같은 품모에 극한 예찬을 보낸 것임과 동시에 당대에 많은 문사들이 이패랭이를 존숭해 그와 비슷한 행색을 하고 다녔던 것을 비유한 것이다.

한편 각종 신선술과 함께 신웅에게 검술을 전수 받은 사실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은전> 내에서 이패랭이의 검술은 조선후기 문화의 일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소재로 차용되었다. 조선후기 검술과 신선술이 경화사조에 어떻게 향유되었는지는 지속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지연이 『대동시선』에 <야학>이라는 시를 실으며 작자명을 이은으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야학>은 이패랭이 서사에 가장 많이 삽입된 시 <백로>와 동일 작품이다.⁴⁶⁾ 작자명에 대한 소주에는 <이은전>의 내용과 같이 자는 자산(子山), 호는 토암(土巖)이며 본관은 전주로 세칭 이패랭이[李蔽陽]이라 하는데, 신이한 술수를 많이 부렸다고 했다.⁴⁷⁾ 이로써 이은은 여러 세기를 거쳐 이패랭이로 거론되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이패랭이는 18~19세기 문화적 특성의 다양한 면모를 고루 갖춘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흥미와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고에서 살펴본 12편의 이패랭이 관련 작품은 이를 방증하는 예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패랭이 연구는 모두 개별 작품에 한정되었으며 작품 간의

46) 부록 참조.

47) 張志淵, 『大東詩選』, <李巖-野鶴>: 字子山, 號土巖, 全州人. 世稱李蔽陽, 多異術.

관련성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목적성을 띄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이패랭이 관련 서사는 2인 이상의 실존인물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임을 밝히고, 그 인적 정보와 교유관계 고증을 시도하였다. 둘째, 이패랭이를 다룬 작품군 서사 간의 유의미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했다. 셋째, 위의 작업을 토대로 이패랭이와 주변 인물, 그리고 당대의 문화적 흐름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본고는 이패랭이는 두 명 이상의 인물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유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정해와 이은이다. 이정해는 노론계 핵심인물이었던 완산 이씨 집안의 인물로, 이정소의 족손이다. 성해옹과 유본학은 이정해를 이패랭이로 명시하였다. 이은은 심능숙의 <이은전>에 입전된 인물로, 이패랭이로 활동하며 남긴 다양한 이인설화와 당대인들의 평가가 자못 상세하며 장지연 역시 이은을 이패랭이로 기록하였다.

또한 상기의 현전 작품 서사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 저명한 문인들에게 정리된 문체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 작품 내 이패랭이의 활동지역이 어느 정도 서로 일치하다는 점, 작자와 작품 내 이패랭이 교유자의 범위가 노론계 경화사족과 친노론계 일가로 일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따져보면 김삿갓만큼 다수 인물의 서사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패랭이와 직접 교유한 작자, 동시대 비교유 작자, 후대 작자 등으로 구분한 작자층의 특징은 각 작품마다 반영되어있다. 그러나 작자와의 교유관계만으로는 각 작품마다 이패랭이를 서술하는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여러 작품 내의 서사적 변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서사의 주인공에 대한 고증, 작자와 이패랭이의 교유관계, 작자의 계급적 위치, 그리고 작자의 문학적 지향점 등 작품론적 관점과 작가론적 관점을 모두 아우르며 다각적인 분석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인물 고증 작업 이후에는 각 작품에서 이패랭이 서사의 주된 소재를 기인이 된 연유, 뛰어난 문식, 신선술 등 3가지로 추리고, 작자의 문학적·계급적 특징이 반영된 서사의 중첩과 변주 양상을 살펴보았다.

뛰어난 재주를 겸비하였음에도 비극적인 개인사를 이유로 방랑객이 된 김

삿갓과 비교했을 때, 앞선 시대를 살며 다양한 서사를 남긴 이패랭이를 유랑 지식인의 선구적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패랭이와 김삿갓을 같은 인물 유형으로 보기에는 그 결이 매우 다르다. 김삿갓은 사회 풍자와 유희적 성격이 강한 시를 지었지만, 이패랭이는 사회를 풍자하는 희작이 없다. 또한 이패랭이의 문식과 시적 재능은 당대에 널리 인정받았으나 전하는 작품 수가 상당히 적다. 결정적으로 이패랭이의 이인담이 신선술에 방점이 찍힌 데에 비하여, 김삿갓의 이인담은 보다 현실적이며 풍류를 즐기는 면모를 골자로 한다. 이는 이패랭이를 ‘시인’이 아닌 ‘이인’으로 남게 하는 결정적 한계이기도 하다.

이패랭이 서사에 차용된 소재는 당대 경화사족 문화의 복합적 양상을 압축해 보여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다. 사대부 문인 이패랭이의 출가와 신선술에 대한 서사는 당대 경화사족 문화의 복합적 양상을 압축해 보여준다. 사대부 문인 이패랭이의 출가와 신선술에 대한 설화들은, 당대 중앙 권력에서 소외된 사대부가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조선후기 이패랭이 서사가 김삿갓의 서사로 계승·변화해 가는 추이에 대해서도 추후의 연구를 기약한다.

부록

<老妓>48)

一片殘花畫閣東,
幾回經雨又經風?
遊蜂戲蝶無消息,
虛送光陰寂寞中.

<偶吟>50)

白髮愁同約,
愁來白髮多.
還家愁可已,
其奈白髮何.

<除夜>52)

旅館盍簪皆不眠,
唯吾撫枕獨頽然.
悠揚倘得東歸夢,
及到京華送舊年.

<白鷺>49)

軒軒人立夕陽時,
芳草晴紗倦睡宜.
意到忽然翻雲去,
青山影裏更誰期.

<贈人>51)

去歲相逢月入梧,
今年邂逅雪盈途.
白雲多處無園綺,
流落人間少友于.

<卽吟>53)

逢君半日語,
忘我百年愁.
醉去無清瀾,
呼來任馬牛.
乾坤獨立鶴,
滄海一虛舟,
荷鍤眞多事,
須從漆叟游.

48) 『고금소총』, 『삼명시집』, 『파수록』, 『야담기문』.

『삼명시집』, 『야담기문』에 光陰→春光

『파수록』에 모든 시어에 비점 처리.

49) 『고금소총』, 『박소촌화』, 『삼명시집』, 『파수록』, 『대동시선』, 『야담기문』.

『고금소총』 人→獨, 更→赴

『박소촌화』에 <白鷺>→<咏鶴詩>

『삼명시집』에 芳→綠, 忽→倏

『대동시선』에 <白鷺>→<野鶴>

『야담기문』에 紗→沙, 更→赴

50) 『고금소총』, 『파수록』, 『야담기문』.

<又>54)

步出靑山裏,
忽來湖水邊.
坐看山水色,
仍與白鷗眠.

<次庚字韻>55)

天於松柏秋無奈,
地以山川路不平.

51) 『삼명시집』.

52) 『삼명시집』.

53) 『박소촌화』.

54) 『야담기문』.

55) 『계암만록』.

참고문헌

1. 자료

- 李東允, 『樸素村話』(서울대 규장각)
成海應, 『研經齋全集』(고려대학교 도서관)
徐滢修, 『明臯全集』(서울대 규장각)
姜浚欽, 『三溟詩集』(서울대 규장각)
柳本學, 『問菴文藁』(개인)
沈能淑, 『後吾知可』(개인)
徐有英, 『錦溪筆談』(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編者未詳, 『古今笑叢』(고려대학교 도서관)
編者未詳, 『破睡錄』(국립중앙도서관)
編者未詳, 『鷄鴨漫錄』(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제 8책)
編者未詳, 『野談奇聞』(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제 12책)
張志淵 編輯, 『大東詩選』(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權復仁, 『天游先生文集』(한국역대문집총간 590)

2. 단행본

- 강준흠, 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분과 역, 『삼명시화』, 소명출판, 2006.
박희병, 『韓國古典人物傳研究』, 한길사, 1992.
안대회, 『벽광나치오』, 휴머니스트, 2011.
안세현, 『傳, 불후로 남다』, 한국고전번역원, 2018.
하지영, 『18~19세기 진한고문론의 전개와 실현 양상』, 소명출판, 2019.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 2, 태학사, 2012.

3. 논문

- 김대중, 「서형수 - 조선후기 지배엘리트의 보수적 합리성과 그 명암」, 『진단학보』 제 133호, 진단학회, 2019, 125~165면.
이강욱, 「‘六美堂記’와 ‘錦溪筆談’의 비교분석을 통한 소설과 야담계 서사체의 관계 양상 고찰」, 『한국학보』 제12권 1호, 일지사, 1986, 1121~1145면.
이승수, 「조선시대 인물전승의 ‘패랭이[平涼子] 지식인’ 형상」, 『역사민속학』 제3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41~71면.

장효현, 『소남 심능숙의 산문문학 연구 - <이은전>을 중심으로』, 『동양학』 제31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1, 125~144면.

진민희, 『소남 심능숙 산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A study on the narrative related to The Hermit Lee Paerang-e[李平涼]
in the late Joseon Dynasty

Jin, MinHui

The Hermit Lee Paerang-e is a person of various aspects of cultural characteristics in the 18-19th century, and has long been a subject of interest and envy for many people. Nevertheless, all existing studies on Lee Paerang-e were limited to individual works, and no research has dealt with the link between them. The works related to Lee Paerang-e are found in a number of literary works, and this paper studies

The three main themes of the Lee Paerang-e narrative are the reason he became a Hermit, his excellent writing skills, and taoist ideology. Lee Paerang-e is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characters, and the representative characters are Lee Jung-hae and Lee Eun. Lee Jung-hae is a relative of Lee Jung-so, a key figure in Noron. Sung Hae-eung and Yu Bon-hak specified Lee Jung-hae as Lee Paerang-e. Lee Eun is the main character in Shim Neung-sook's *LeeEun Jeon* in which his various Hermit stories written while working as Lee Paerang-e and the evaluation of the contemporary people are very detailed. Shim Neung-sook is the only writer who has specified Lee Eun as Lee Paerang-e.

Lee Paerang-e was a representative Hermit in the late Joseon Period. Compared to Kim Sat-gat, who became a wandering poet due to his tragic personal history despite being an outstanding writer, Lee Paerang-e, who left various narratives in the preceding era, can be seen as a pioneering type of wandering intellectuals. But, Lee Paerang-e and Kim Sat-gat have different character types. Kim Sat-gat wrote poems with strong social satire and playfulness, but Lee Paerang-e has no social satire works or plays. Lee Paerang-e's literary and poetic talents were widely recognized during the period, but the number of works handed down is considerably smaller than that of Kim Sat-gat. Essentially, the Lee Paerang-e's Hermit story focuses on taoist ideology while Kim Sat-gat's Hermit story is more realistic and

enjoys the arts. It is the decisive limit that leaves Lee Paerang-e as a Hermit, not a Poet.

The material used in the Lee Paerang-e's narrative shows the complex culture aspects of the time. Lee Paerang-e's folktales about taoist ideology can be interpreted as a way for a nobleman who was alienated from the central power of the time to relieve his feelings about the real situation. Further research will talk about the trend of succession and change from Lee Paerang-e' narrative to Kim Sat-gat's narrative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Lee Paerang-e, Narrative related to The Hermit, The late Joseon Dynasty,
Lee Paerang-e narrative

접수일자: 2020. 9. 30. 심사기간: 2020. 10. 1.~2020. 11. 10. 게재결정: 2020. 11. 10.
